

北京의 「世界최대」

김 윤 기

자전거 600만대의 도시

북경에는 「세계최대」가 많다. 우선 자전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다. 북경의 인구는 1,200만이다. 그런데 자전거는 600만대가 있다. 인구 2명에 1대꼴이다. 노인과 유아, 병구폐질자 인구를 빼면, 사실상 전 시민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북경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구획되어 있다. 도로의 단면을 보면 중앙에 차도, 그 다음이 자전거도로, 그리고 보도로 되어 있다. 차도는 넓게 뚫려 있으나 그리 번잡하지 않다. 보도도 도심지에는 인파가 붐비지만 도심에서 벗어나면 인파는 많이 준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어딜가나 러시다. 길이 메어져 차도로 빠져나온 규칙위반 자전거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서울 올림픽 때는 자동차운행을 격일제로 운행했다. 북경서는 아시안게임때 자전거의 운행을 격일제로 했다 한다.

100만명 수용하는 天安門 광장

북경의 얼굴, 천안문(天安門)광장은 엄청나게 큰 광장이다. 광장 규모로는 세계최대다. 남북이 880m, 동서가 500m, 면적은 40



▲거리의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왕국 北京에 는 거리 곳곳에서 이런 풍경을 본다.

헥타에 이른다 한다. 이런 숫자만으로는 광장의 크기가 얼른 짐작이 안간다. 그러나 이 광장에 20만명이 모여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가 상상이 될 것이다.

광장 양쪽으로 탁트인 장안가(長安街)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모일 수도 있다 한다. 이 광장은 걸어서 건너기는 힘들다.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을 알아 볼 수도 없다. 길 건너 쪽 풍경은 바다에서 수평선을 보듯, 아득하고 안개속의 그림자처럼 어른거릴뿐이다.

중국의 근대역사는 이 천안문광장에서 모두 발생했다. 작년 봄(89년)에 있었던 민주화시위를 비롯, 1919년의 5·4운동과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선언, 1966년의 문화대혁명 시위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당시 1,200만명의 홍위병(紅衛兵)을 모택

동(毛澤東)이 3개월간 이 광장에서 열병했다.

광장 한복판에는 인민 영웅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높이 38m의 석조 오베리스크다. 기념비 바로 남쪽에는 모(毛)주석 기념당이 있다. 화국봉(華國峰)이 당시 화폐로 2억원을 투입하여 지은 건축물이다. 기념당 중앙에는 모택동의 유체가 안치되어 있는데, 이 유체는 절대 촬영 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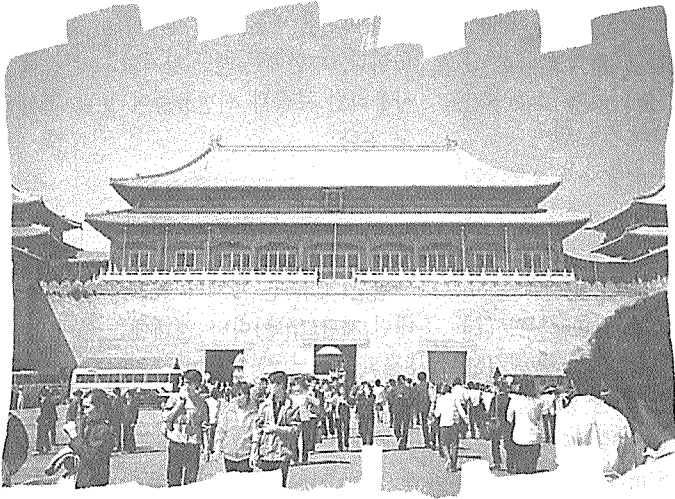
이 두개의 건축물이 있을뿐, 넓다란 광장에는 전주 한개 없다. 광장을 둘러싸고 주변에 역사박물관, 혁명박물관, 인민대회당, 인민문화궁 등의 기관이 서 있다. 국회의사당격인 인민대회당은 내부에 1만명을 수용하는 대회의실(萬人大會堂)에 있고, 원시시대부터 아편전쟁까지(역사박물관), 아편전쟁이후부터 인민공화국설립까지(혁명박물관), 1만2천평방미터에 1만여점 이상이

진열되어 구경하는데 만나절이 걸리는 거대한 건물들이 광장에서 보면 사과케잍 정도로 보인다.

천안문은 자금성(紫金城)의 정문이다. 명나라 영락제(永樂帝)때 세워졌다지만 현재의 건축물은 청나라때 개조된 것이다. 붉은 벽에 유리기와를 얹은 천안문은 성문으로서 세계최대다. 예전에는 이 성문에는 당간부나 국빈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었다. 88년이후부터 입장료를 받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방 99,999개의 紫金城

고궁(故宮)은 세계최대의 왕궁이다. 명의 영락제가 15년간(1406-1420)에 걸쳐 20만명을 동원하여 지은 왕궁이다. 궁의 정식 명칭은 「자금성」.



◀ 자금성의 正門인 午門. 이문을 들어서면 자금성 正殿인 太和殿이 있다.



▲天安門 광장 앞의 필자.
뒤에 보이는 건물은 인민문화궁.

동서는 약 750m, 남북은 1,000m, 면적은 72만평방미터에 이르는 대 궁성이다. 그 주 위에는 십여미터나 되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고, 성벽의 바깥쪽 바로 밑에는 폭이 50m 나 되는 두렁이 파여 있다. 이곳에 물을 담 으면 두렁이 아니라 강이 된다. 그래서가 이름도 돈스호(筒子河)다.

이 안에는 700여개의 누각과 속칭 99,999 개의 방과, 100만점에 이르는 소장품이 있다. 오늘날은 이름도 고궁박물관으로 고치고, 이것들을 일반에게 보여주고 있다.

고궁의 남쪽 천안문에서 북쪽 신무문(神武門)까지 12개의 전각이 일자로 줄을 서고 있다. 그중 태화전(太和殿)은 중앙의 대전이다. 자금성의 정전(正殿)격이다.

높이가 35m, 폭이 64m의 3층 백대리석

기단(基壇)위에 세운 목조건축물로 내당 중앙에 황제의 옥좌(玉座)가 있다. 이곳에서 천자(天子)가 문무백관을 세워 놓고 500여년간 세계 최대의 왕국, 중국을 호령하고 다스렸다. 황제의 즉위식이나 국가 중요 의식도 이곳에서 열렸다. 태화전은 목조건축물로서는 세계최대다.

태화전 뒤에는 궁중연회가 열리던 중화전(中和殿)과, 과거를 비롯 국가적 행사와 황제가 실지 정사를 보던 보화전(保和殿)이 나란히 서 있다. 이 3개 전당을 가리켜 삼대전(三大殿)으로 부른다.

삼대전 뒤에는 건청문(乾清門)이 있고, 건청문을 지나면 황제의 내당인 후궁(後宮)이다. 정전(正殿)인 건청궁은 황제의 내실이지만, 정무를 이곳에서 집행했다.

그 뒤에는 교태전(交泰殿)과 곤녕궁(坤寧宮) 등 3궁이 있고 주변에는 소궁(小宮), 소전각이 뿔뿔히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황제의 비빈을 비롯, 궁녀, 환관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 안에는 옛날 황제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던 보물과 신변용품이 보관 전시되고 있다.

신비스런 건축물 天壇

천단(天壇)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祭壇)이다. 경내에는 높이 38m, 3층의 둥근 금색 기년전(祈年殿)을 비롯하여 대리석 난간으로 둘러싸인 원구(園丘), 둥근 지붕의 황궁우(皇穹宇) 등 3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명·청의 역대황제들이 이곳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
지낸 天壇.



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못을 한개도 쓰지 않은 신비로운 건축물
 기년전은 명나라 영락제가 처음 건축했으
 나, 그후 비락을 맞아 소실되었다가 1896년
 청나라때 재건되었다.

황궁우는 기년전의 축소판처럼 생긴 작
 은 건축물인데, 역대 황제의 위패를 모시던
 곳이다.

그런데 이 황궁우를 둘러싼 원형의 토벽
 에 가까이 입을 대고 중얼거리면 반대쪽 담
 벽에 서 있는 사람귀에 또렷하게 들린다.
 소리가 한바퀴 빙 돌아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 담벽을 「회음벽(回音壁)」이라고 부른
 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황궁우를 받치고
 있는 석단(石壇)아래에 있는 이상한 받침
 돌이다. 첫번째의 받침돌 위에서 손뼉을 한
 번 치면 한번의 메아리가 치고, 두번째의
 받침돌에서 손뼉을 한번 치면 두번의 메아

리가, 세번째 받침돌에선 세번의 메아리가
 친다. 이것은 손뼉소리가 원형의 담벽에 부
 던쳐 굴절반사되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이다.

천단은 지금은 공원이 되어 일반에게 공
 개되고 있다. 북경에는 천단외에 황제가 제
 사를 지내던 곳이 또 여럿곳 있다. 북쪽에는
 지단(地壇), 동쪽에는 일단(日壇), 서쪽에
 는 월단(月壇)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은 모두 공원이 되었다.

서울에는 소공동 조선회관 경내에 이 천
 단을 축소한 환구단(圓丘壇)이 일부 남아
 있다.

북경에는 「세계최대」의 역사유적이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화원(頤和園)은 세
 계최대의 별궁이며, 만리장성은 세계최대의
 성벽이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